

"마음이 가는 대로 소망해 봐.
앞날을, 미래를... 약속이 또 이뤄지기를!"

****파판14 칠흑 스포 있음****









(영웅 살리겠다고 평행세계에서 저런 모습으로 100년 넘게 살음,,, 영웅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이유 하나로 몸을 크리스탈이랑 융합시켜서 셀프 인외 됨 오직 영웅하나때문에 정체도 숨김)

박사학위까지 딴 현인... 역사학도 좋아하고 여튼 학문 덕후임. 책 좋아함. 금서 읽다가 들켜서 쫓겨난 적도 있음. 20대 초중반정도.

영웅과 첫만남 직후 그라하는 영웅한테 감명받고 (이땐 그냥 평범한 고양이수인남자 었음.) 모종의 이유로 봉인 비스무리하게 됨. 그리고 깨어난 미래에서 영웅이 죽었음. 그 미래가 엄청 발전한 덕에 다른 세계의 과거로 가서 영웅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토대를 100년도 넘게 마련함.

본인 왈, 어릴 적부터 영웅이 나오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고 자신은 영웅을 동경하지만 영웅이 될 수 없음. 영웅이 어울리는 사람은 아님. 하지만 영웅을 위해서라면 세상 같은 건 몇 번이고 구해낼 수 있다고 함.

그러고 정체 숨긴 채로 다른 세계에서 만남. 세계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있을 때 영웅을 다른 평행세계로 불러 영웅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줌. (근데 거기에서 자신이 모든 걸 떠안고 희생해야하는데 이 사실을 알면 영웅이 자신을 구하고 결국 죽는 엔딩 날까봐 전부 숨기고 아닌 척 함. 아닌 척 하는데 중간중간 자꾸 자기도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모험을 하는 게 지 꿈이라고 함... 근데 그게 나임...ㅠㅠ)

하지만? 결정적인 순간 빌런의 개입으로 계획 다 망침. 여차저차 여튼 영웅을 다른 세계로 불러온 덕에 다른 길도 열려서 세상 구하고 그라하도 다시 원래 세계로 건너옴.

이후 예전부터 항상 하고 싶어했던 영웅과의 모험을 즐기는 중.

알리제는 사건 전말 다 알고(알리제도 같이 있었음 새벽이라고 세상 구하는 혈맹 조직이 있는데 그 일원임) 그라하가 자꾸 자기 희생하고 영웅 살리려고 하니까 알리제가 뻑쳐서 그녀(영웅)가 슬퍼하는 선택지야말로 최악의 선택지가 아니고 뭐겠어! 라면서 라하 한대 팸